

제5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티지키스탄 외국어대학교	성명	이예카테리나	학년	4	생년월일	1999년 12월 31일
----	--------------	----	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-

하늘이 감감해지고 비가 내린다. 그
날도 그랬다. 산에는 추위가 일군
한 귀고 날아갈듯이 심해지는데 바람 때문에
에 겁기도 없을었다. 온종일 비스를 잔
아 줄을 자기에 얹아 종종거리며 걸어
가는 사람들을 보며 '저 사람들은 이 참
못하겠네'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파듯한
자리에 있다는 것이 위도가 되어 기뻐
기까지 했다.

갑자기 번개와 비바람이 치면서 장대
구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. 분명히 내
머리에 '어머니'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. '이
렇게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할까' 하
지? 거긴 노천인데 큰일났네' 라는 생
각이 들었지만 '나도 저물고 죽을까
지금쯤은 집에 와 계속 거야' 하고 여
기저 ^{아름}찬 풍경과면서 집에 돌아왔다.

집에 와 보니 들새들만 있고 어머니
는 안 계셨다. 벌써 비가 내릴 지
시간이 지났지만 어머니가 돌아오시지
않으셨다. 불안해져서 우산 들고 나가
찾으니까 나갔다. 꼭 물대기가 늦게 나가
는데 내가 실어서 미친듯이 달려갔는데
먼 거에서 비에 젖은 새안경처럼 어머니
가 당신 키만큼 두 개가 바뀌고

우름: Good
but: 25999
but: Good

제5회 중앙아시아 청년학술행사

학번	1990년 12월 3일
생년월일	4
학년	이여카테2/4
성명	타지키스탄 외국어대학
학교	프

[illegible]

